



역도 신록·손영희 3관왕 ‘번쩍’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남-65kg, 여+86kg 정상
남-110kg 서희엽 금… 문정선 은 3개 획득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경기부 역자들이 무더기 메달을 따내 올가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역도연맹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청 역도선수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5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남자 일반부 -65kg급 신록은 인상 116kg, 용상 150kg, 합계 266kg을 들어 올리며 3개 부문 모두 정상에 올라 3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일반부 +86kg급 손영희는 인상 105kg, 용상 132kg, 합계 237kg을 기록하며 3관왕에 올라 제주 역도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함께 남자 일반부 -110kg급 서희엽도 인상 171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용상 210kg과 합계 381kg으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여자일반부 경량급 기대주인 -53kg급 문정선은 인상 76kg, 용상 96kg, 합계 172kg으로 전 종목 은메달을 획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신록

손영희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전국 규모의 실업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경기력 점검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무대가 됐다.

제주선수단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홈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과 다수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MVP 경쟁’ 오타니·PCA, 맞대결서 멀티홈런

<피트 크로암스트롱>

MLB 다저스 vs 컵스 경기
둘 다 1회 선두타자 홈런
6-7 컵스 승… 다저스 6연패
PCA, 시즌 승리기여도 우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올 시즌 유력한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꼽히는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피트 크로암스트롱(시카고 컵스)이 뜨거운 화력 대결을 펼쳤다.

오타니와 크로암스트롱은 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시카고 컵스 경기에서 나란히 홈런 두 방을 주고받았다.

시작부터 두 타자의 방망이가 불을 뿜었다.

1회초 다저스 선두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컵스 선발 이마나가 쇼타를 상대로 우월 솔로아치를 그려 기선을 잡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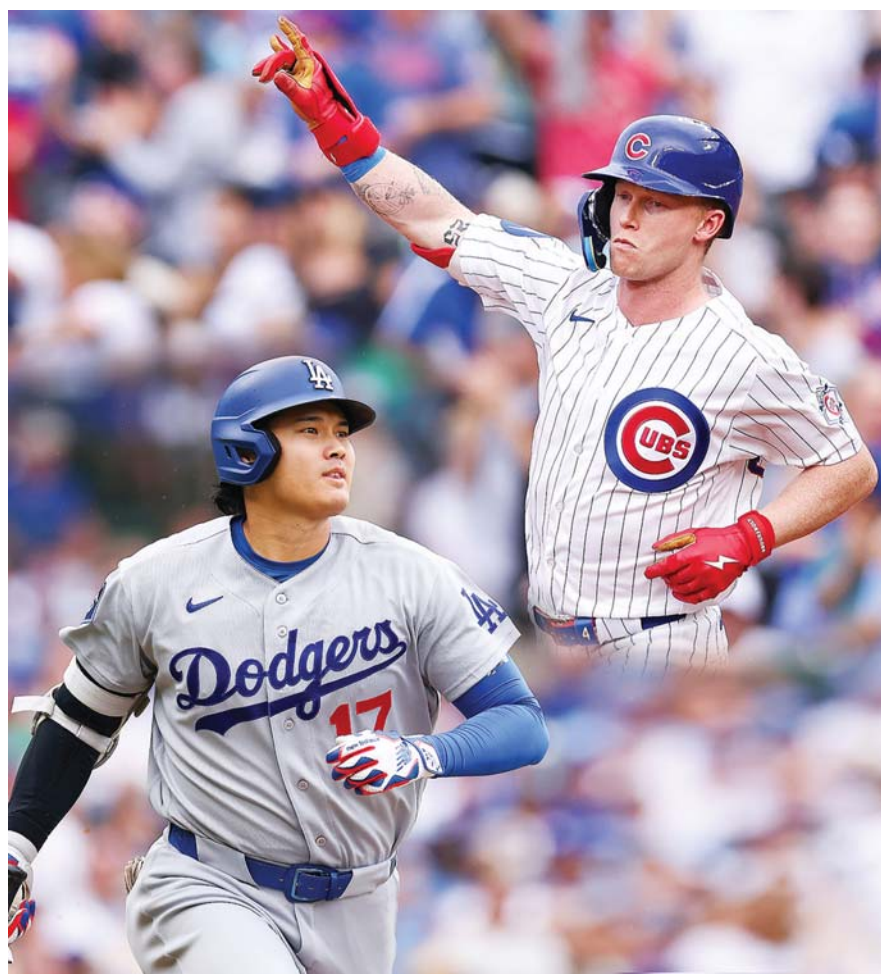
그러나 공수 교대 후 1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크로암스트롱은 다저스 선발 에릭 라위의 공을 받아 쳐 중월 솔로홈런을 날렸다.

최근 50년간 리글리필드에서 1회초·말 선두타자 홈런이 터진 것은 두 번째다.

통계업체인 엘리어스 스포츠뷰로에 따르면 그해 MVP 투표 10위 이내에 오른 선수끼리 선두타자 홈런 공방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기세가 오른 크로암스트롱은 2회말 우월 2루타로 타점을 추가한 뒤 4회말에는 우월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컵스의 초반 리드를 만들었다.

오타니의 방망이도 잠지 않았다.



6일(한국시간) 미국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MVP 경쟁'이 한창인 오타니 쇼헤이(LA)와 PCA(시카고)가 서로 보는 앞에서 멀티홈런을 쳤다. 연합뉴스

오타니는 4-7로 뒤진 8회초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홈런을 날렸다.

오타니가 멀티 홈런을 날린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그러나 다저스는 오타니의 활약에도 6-7로 패해 올 시즌 첫 6연패를 당했다.

이날 홈런 두 방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4타점을 기록한 크로암스트롱은 시즌 26홈런, 28도루를 기록해 2년 연속 '25홈런-25도루'를 돌파했다.

컵스 구단 사상 2년 연속 '25-25'를 달성한 타자는 크로암스트롱

이 처음이다.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한 오타니도 시즌 홈런 26개를 기록했다.

올 시즌 도루는 6개뿐이다.

팬그래프닷컴의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fWAR)를 살펴보면 올 시즌 오타니는 타자로서 3.4, 투수로 3.0 등 합계 6.4를 기록 중이다.

반면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중견수로 꼽히는 크로암스트롱은 fWAR 7.4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올 시즌 115경기에 출전한 크로암스트롱은 이날만 수비를 하지 않고 지명타자로 출전했다. 연합뉴스



머리 맞댄 K리그·맨시티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쿠팡플레이시리즈 팀 K리그와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경기. 팀 K리그 이기혁(왼쪽)과 맨시티 무바미가 헤딩 경합을 펼치고 있다. 이날 맨시티는 팀 K리그에 3-1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해외동포선수단 맞춤형 지원 추진 도, 국가별 전담반 구성… 입국부터 출국까지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해외동포 선수단 편의를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등 18개국 해외동포 선수단 1600여 명이 참가해 고국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를 함께한다.

제주자치도는 국가별 전담반을 구성해 입국부터 출국 때까지 지원한다.

전담반은 공항 영접을 시작으로 숙소 안내, 경기장 이동 지원, 관광 안내, 각종 민원 처리 등 대회 참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국제선과 제주항공 국내선 이용 시 무료 위탁수하물을 지원하며, 인천

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이동하는 해외동포 선수단을 위해 무료 순환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해외동포 선수단과 가족들이 체전과 함께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경기 종료 후 오후와 야간 시간대에 도내 주요 행사와 연계한 관광버스를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방문을 통해 제주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UFC 최두호·유주상, 9월 나란히 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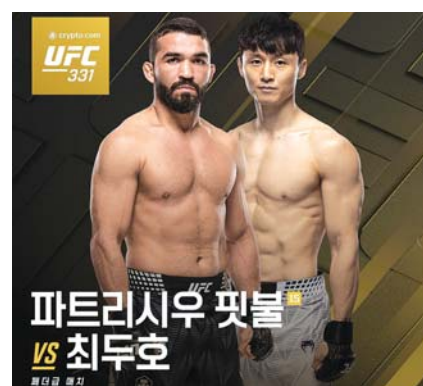
‘슈퍼보이’ 최두호(35)와 ‘좀비 주니어’ 유주상(32)이 나란히 옥타곤에 출격해 동반 승리를 노린다.

최두호와 유주상은 9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331: 반 vs 판토자 2’ 대회에 출전해 각각 파트리시우 핏

불(39·브라질), 마이클 애즈웰 주니어(25·미국)와 주먹을 맞댄다.

최두호는 병역 의무를 마치고 2023년 복귀한 뒤 1무 후 다시 3연속 KO승을 내달리며 전성기를 맞고 있다.

정찬성의 지도를 받는 유주상 역시 부상을 털고 11개월 만에 명예 회복에 나선다. 연합뉴스



UFC 랭킹 재진입을 노리는 최두호.UFC 제공



수 銀 賞 상

(대금연주)



전 영 천

제2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소 연 국 악 원

원 장 신 은 속 외 원생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 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